

서울시, 도급택시 뿌리 뽑는다

서울시가 무자격 운전자의 불법 영업으로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도급택시를 뿌리 뽑기 위해 전국 최초로 '교통사법경찰반'을 신설했다. 그동안 경찰과 공조수사를 해왔다면 이제는 전담 인력을 통해 수사의 전문성·효율성을 높인다. 검찰에 직접 송치가 가능해 수사의 신속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도급택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의 '명의이용금지'를 위반한 택시를 말한다. 택시운전자격을 없는 사람 등 회사에 정식으로 고용된 기사가 아닌 자에게 택시를 빌려주고 영업

전국 최초 교통사법경찰반 신설...전문성·효율성↑
경찰청·금융·IT 전문가 등 전문가보강 인력 강화

을 하게 하는 불법 택시운영 형태다. 시는 지난해 1월 도시교통실예 교통사법경찰반을 구성했다. 지난해에는 경찰청, 금융·IT 업계 출신의 수사·조사·회계 전문가 등 수사 인력을 보강했다. 현재는 총 8명이다. 시는 지금까지 '교통사법경찰반'

을 통해 총 3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자체 압수수색도 전국 최초의 사례다. 총 30대 차량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1차 압수수색은 지난해 5월에 있었다. 시 교통사법경찰반은 불법도급택시 운영현황이 있는 1개 택시업체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 수사를 거쳐 9월 검찰에 총 22대 차

량을 기소의견 송치했다. 12월부터 재판이 진행 중이다. 2차 압수수색은 지난해 10월에 진행됐다. 1개 업체에 대한 수사 후 3월 검찰에 총 8대 차량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현재 검찰이 조사 중이다. 지난해 11월에는 택시면허 무자격자 등에 불법으로 택시를 명의대여해 운영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택시업체 3곳, 차량 2대에 대한 3차 압수수색이 집행됐다. 회계장부, 차량 운행기록, 급여대장 등 불법 운영과 관련된 자료가 확보됐다. 시는 도급택시로 의심되는 택시를 이용한 시민은 120다산콜로 신고해줄 당부했다. 카드기기가 고장났거나 택시요금을 현금으로 지불하거나 계좌로 송금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조수석 앞에 부착된 택시운전자격증의 사진과 실제 택시운전자와의 얼굴이 다른 경우는 도급택시로 의심해볼 수 있다.



드론으로 미세먼지 배출 공장 단속...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과 수도권대기환경청 미세먼지 감시팀이 21일 경기 안산시 반월공단에서 오염물질 측정이 가능한 드론을 이용해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 복지시설 외면당한 중증장애인 낫활동 돕는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낫활동 돌봄사업 효과, 전면 확대

서울시가 복지시설에서 입소를 거부당한 장애인의 낫활동을 돕는 등 중증장애인 복지를 강화한다. 서울시가 22일 발표한 2019년 장애인복지관 개선 계획에 따르면 시는 앞으로 성인 최중증장애인과 고령장애인 등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낫활동 지원을 확대한다. 시는 7월부터 10개 복지관에서 40명 규모로 운영하던 낫활동 지원 사업을 '20개 장애인복지관 80명'으로 확대 운영한다. 장애인복지관들은 도전적 행동(발달장애인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행동으로 의사소통의 방식)으로 기존 복지시설에서 이용을 거부당

한 성인 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 감소를 위한 맞춤형 개인별 지원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시는 도전행동을 가진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운영지침을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개발했다. 시는 이 지침을 서울시와 전국 시도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 밖에 시는 탈시설해 자립생활 주택 71가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117명의 지역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지역사회전환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공간 부족으로 서비스 제공이 어렵거나 시설이 미비한 자치구의 장애인복지관 시설을 확충한다. 올해 구립장애인복지관 2개가 신규

개관한다. 시설확충이 필요한 구립 장애인복지관 2개(강북, 강동)는 시비 지원절차인 투·융자심사 등 사전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시립북부장애인복지관은 올해 1개층 증축을 마무리해 발달장애인 서비스를 강화한다. 강북권의 유일한 정각장애인복지관인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은 별관 건립 설계공모를 추진한다. 시립뇌성마비복지관은 증축 예산확보를 위한 사전절차를 밟는다. 황치영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49개 장애인복지관과의 민·관 협업을 통해 장애인복지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앞으로 소외되는 장애인이 없이 생애주기별 서비스를 두루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봄나물 요리 만들어요"
서울시, 내달 2~3일 요리교실

서울시는 봄철 건강관리를 위한 '봄나물 요리 만들어요' 요리교실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요리교실은 4월2~3일 시민 200명을 대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된다. 이번 강좌는 봄에 나는 제철 나물을 다양하게 이용하는 법을 김옥경(한식요리연구가) 강사가 알려준다. 봄나물의 이해에 대한 이론 교육 후 4월2일에는 봄나물 튀김, 봄나물 주구미 냉채를, 3일에는 봄나물 편채, 봄나물 맑은탕을 만들어본다. 참가비는 무료다. 교육생은 신청순으로 200명이 모집된다. 참여신청은 28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http://agro.seoul.gov.kr) 신청바로가기 메뉴에서 가능하다.



서울시, 광견병 예방약 4만개 살포

5월13일까지 너구리 출몰 지역 살포... "산행시 접촉 주의"

서울시는 야생동물들 통해 전파되는 광견병을 예방하기 위해 '광견병 미끼예방약'을 살포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민과 반려견은 산행시 수풀 속 미끼예방약 접촉을 주의해야 한다. 광견병은 모든 온혈동물에서 발생하는 질병이다. 감염 동물로부터 물리거나 할린 상처(교상)를 통해 동물과 사람에게 전파되는 인수공통전염병이다. 시는 25일부터 5월13일까지 너구리, 여우 등을 통해 전파되는 광견병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예방약 4만개를 집중 살포한다. 광견병 미끼예방약은 가로 3cm, 세로 3cm의 갈색고체다. 어복반죽이나 닭고기 반죽 안에 예방백신이 들어있는 형태다. 너구리 등 야생동물이 먹으면 체내에 광견병 항체가 생긴다. 광견병 미끼예방약 살포지역은 너구리 주요 서식지인 북한산, 도봉산, 수락산, 불암산, 관악산, 용마

산, 우면산, 대모산과 너구리가 자주 출몰하는 양재천, 탄천, 인양천 등이다. 서울시 외곽에 차단포 형태로 지형에 따라 50~100m 간격으로 살포된다. 살포는 너구리 등 야생동물이 찾아 먹기 쉽도록 미끼약을 한 장소에 18~20개씩 뿌리는 방식이다. 시민들이 약을 만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살포 장소에는 경고문 등 안내판이 부착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이 산행 중 나무 밑이나 수풀 속에 살포된 야생동물 미끼예방약을 발견했을 경우 접촉을 피하고 약을 가져가거나 치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견병 바이러스는 야생 너구리의 침이나 점막 속에 있다. 감염되면 1개월 전후 잠복기를 거쳐 증상이 나타난다. 사람이 물렸을 경우 상처부위를 비눗물로 씻어낸 후 즉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반려동물도 야생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야외활동시 반드시 목줄을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임금님표이천' 13년 연속 농산물 브랜드 파워 1위

경기 이천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인 '임금님표이천'이 한국농협진흥센터(KMAC)에서 주관하는 제21회 한국산의 브랜드 파워(Korea-Brand Power Index K-BPI)조사에서 농산물브랜드 부문 1위를 차지했다. 이로써 임금님표이천 브랜드는 지난 2007년 이래 올해까지 13년 연속으로 1위를 수상했다. 임금님표는 이전쌀뿐만 아니라 이천한우, 이천한돈, 이천계란, 이천별꿀 등 이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로서도 범위를 넓혀 소비자의 신뢰를 이어가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천시 관계자는 "13년 연속 브랜드 파워 1위를 계기로 앞으로 고품질의 농특산물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이천쌀의 품종대체사업 및 이천한우 브랜드 육성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완도군 e-shop

완도군 공식 농·수산물 쇼핑몰

완도군 특산품관

WANDO COUNTY

전국제일의 청정바다에서 생산된 전복, 김, 미역, 멸치, 다시마 등 자연 그대로의 맛과 신선함!